

투데이 칼럼

면접스피치의 준비와 연습

현 대는 입사 시에 면접의 비중이 큰데, 서류나 필기시험만으로는 인재의 육식을 가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입사의 최종 관문인 면접의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부담이 크다. 면접시험에 떨어지면 시도할 엄두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면접에서도 성공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이 필요하다. 면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지피지기(知彼知己)다. 즉, 나를 알고 입사할 회사에 대해 아는 것이다. 입사할 회사가 어떤 측면을 특히 중요시하는지 면접 방식과 경향은 어떤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게 면접전략을 세워야 한다. 면접 기출 문제를 준비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도 미리 점검한다. 왜냐하면 일관성 없는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어떤 회사든지 간에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는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면접 전날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 피곤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면접 당일에 허둥대지 않도록 장소와 교통편을 미리 확인해 두고, 수험표와 신분증 등 지참물도 미리 잘 챙겨둬야 한다. 사소한 실수가 당황스런 마음을



김양욱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일으켜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바쁘더라도 조간신문은 꼭 읽어 보도록 하며,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으로 면접시간 30분 전에는 도착하는 것이 좋다. 대기실에서는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며 침착하게 기다린다. 면접장에 입실해서는 예의범절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신입사원답게 자신 있고 침착하게 답변하도록 한다. 말을 할 때는 말의 내용과 표현,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내용 부분을 짚어보자. 좋은 내용의 답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을 잘 들어야 한다. 훌륭한 답은 올바른 질문과약에서 출발하는 법이다. 또한 너무 성급하게 답변하지 말고 질문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도록 한다. 곧바로 답변을 쏟아내면 경솔한 이미지를 줄 수 있으며 엉뚱한 답변을 하게 되기 쉽다. 한 템포 생각할 여유를 갖는 것이 더 적절하고도 좋은 답변을 할 수

있게 하며 침착한 인상을 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답변을 할 때는 먼저 결론부터 말하고 그에 따른 부연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 면접관은 많은 사람들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느긋하게 들어줄 여유가 없다. 그리고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인 답변이 되도록 한다. '뽑아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는 식의 답변은 아무런 감흥을 끌지 못한다. 요즘은 간혹 당황스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숨어있는 속내를 엿보기 위해서나 혹은 임기응변 능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침착하게 상식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문현답이 될 수 있다. 둘째, 표현부분을 살펴보자. 표현은 바르고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며 균정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 박도바 분명하게 발음하도록 한다. 너무 힘있어 맥 빠진 목소리로 말

하면 면접관에게 잘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이미지로 비쳐지기 쉽다. 너무 빠르게 말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마음은 더 급해지고 실수를 할 확률도 높아지고 침착하지 못한 이미지를 주게 된다. 표현능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기 어렵다. 평소 스피치 훈련을 열심히 해두는 것이 좋다.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순간만이 면접이 아니다. 대기실에서의 태도나 면접을 마치고 나온 후의 모습들도 당락에 외의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수험생이 복도 계단에서 큰 소리로 휴대전화를 하다가 계단에서 누군가 마주친 사람이 잠시 후 면접실에 들어가 보니 그 분이 면접관으로 앉아 있었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어느 수험생은 면접을 마치고 나오면서 바닥에 떨어진 압정을 발견하고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펴서 줍고서 되짚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처럼 이런 조그만 행동마저도 면접관들에게 긍정적인 깊은 인상과 호감을 심어 준다. 면접에 정답은 없다. 하지만 자신감을 갖고 전략적으로 준비하라. 올바른 전략과 준비, 그리고 당당한 자신감이야말로 면접 성공이란 관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최고의 열쇠가 되어 줄 것이다.

독자제언

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하자

최근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 추세로 시골과 같은 경우는 거의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보면 작년 교통사고 사망 중 39.9%로 보행자 사망사고가 1위를 차지하는데 그 중 고령인 65세이상 노인 사망자가 최다로 40.4%를 차지 하고 있다. 이만큼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은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어린이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행 노인, 어린이 등은 우리가 교통 약자라고 칭하는데 교통약자의 교통사고율이 점점

증가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할 때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는 속도를 20~30% 감속하여 운행하거나 갑자기 차도로 뛰는 어린이들이 있는지 좌우를 잘 살펴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행자 뿐 아니라 전동 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을 뒤 따라가는 운전자는 최대한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교통약자를 배려하여 안전운행 한다 면 앞으로 교통문화 선진화에 앞장 설 것이라 기대가 된다. 오형식 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경위

독자제언

음주운전 '잠재적 살인행위'

얼마 전 방송매체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앞날이 창창한 대학원생이 음주 사고를 당해 다리를 심하게 다쳐 평생 의족에 의지 한 채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가슴 아픈 사연이 방송되었다. 이 사고로 모든 꿈과 희망이 좌절 되었으며 자신의 처지에 대해 절규를 하였다. 또한 이러한 음주사고는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이렇게 불의의 음주사고로 사망한 이들의 가족들은 소중한 부모, 자식들을 잃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음주사고로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은 의지 할 곳 없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자신보다 더 아까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자식을 잃은 아픔을 가슴에 평생 묻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한잔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인기

적인 생각이 이렇듯 소중한 이들의 생명과 삶을 파탄으로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경찰은 '음주운전사범 처벌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구형 기준을 강화하고 동승자 등 방조범도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있지만 운전자 개개인의 확고한 의지도 필요하다. 필자의 경우 술자리에는 아예 차를 가져가지 않기로 다짐하고 지키고 있다. 아울러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인 동시에 자살행위임을 명심하고 순간의 실수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찰관리동대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세계 잼버리 프로젝트 계속 키워야

전북도는 세계 잼버리 프로젝트를 계속 키워야겠다. 세계 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를 정부가 환영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만큼 관심을 키워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기에 관심을 더욱 고해야 한다. 그러나 경계할 것은 있다. 대통령과 고위 인사들이 지원을 약속했다 해도 그게 덕담 차원으로 끝나게 해서 안된다. 어떻게 잘 해주겠지라고 믿고 있다가 허를 찔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전북도는 예산 증액의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지금은 다른 광역 지자체들도 예산 증액 명분 쌓기에 골몰하고 있는 때이다. 전북도는 보다 독특해야 한다. 새만금 사업과 잼버리 대회를 연계해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를 더 키울까 궁구해야 한다. 도민들이 전북도에 말하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낙후돼 있다.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 뒤쳐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북도는 그것을 늘 생각해야겠다. 전북도가 세계 잼버리 프로젝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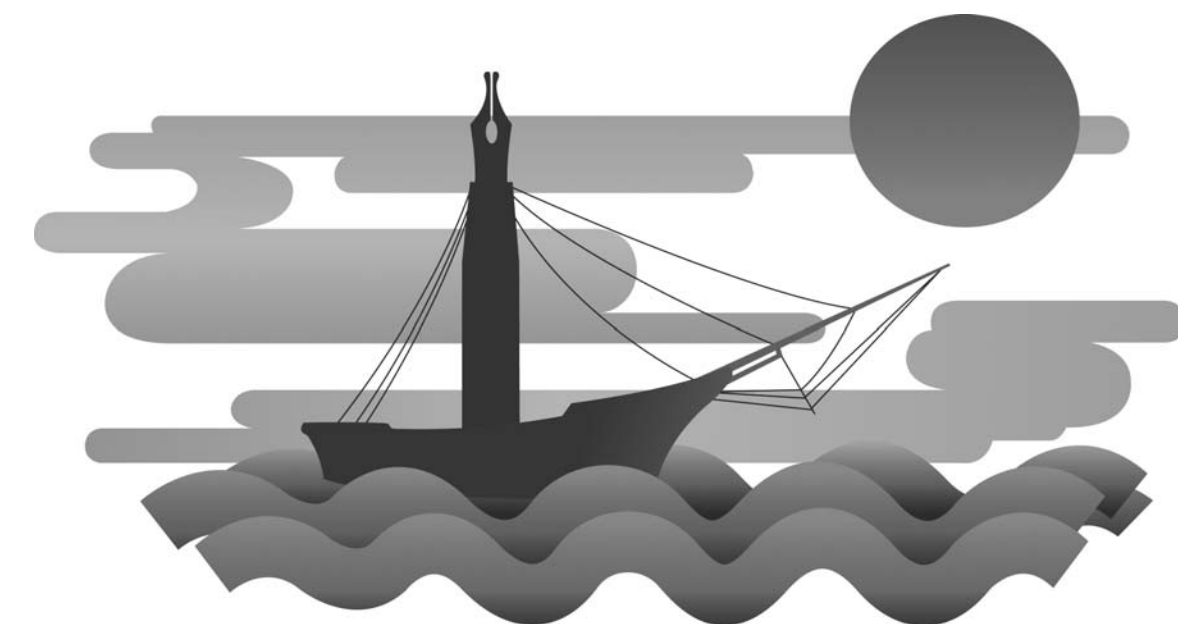
키워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올해들어 우리 지역에는 세계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했다는 소식 말고는 별로 좋은 소식이 없다. 그만큼 세계잼버리 대회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는 크다. 도민들은 전북도가 새만금에 세계잼버리 대회를 유치하는 저력을 보여준 게 여간 대견스러운 게 아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도지사를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의 그 책임이 막중하다. 지역이 오래도록 뒤쳐졌기에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지역 발전은 경쟁의 소산이다. 다른 광역지자체와 경쟁해서 조금이라도 이겨야 다른 광역시도와 그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북도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예산 증액의 논리를 치밀하게 전개해야 한다. 전북도는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을 위해 프로젝트를 키워야 한다. 전북도는 도민에게 약속했던 말의 무게를 생각해 야겠다. 전북도 관계자들은 다른 광역시도보다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러는 가운데 새만금 발전 프로젝트에도 힘을 기울여주기 바라는 바이다.

국도교통부장관에게 균형 발전 계속 말해야

국도교통부장관에게 균형 발전을 계속 말해야겠다. 역대 정부들은 전북도의 균형발전 요구에 귀를 닫았던 것이 사실이다. 일부러 그랬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결과를 놓고 볼 때 그렇다. 그래서 전북의 낙후는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크게 표나고 있다. 낙후를 말하고 있는 지자체들과 비교해도 전북의 경우는 더욱 표가 나고 있다. 이런 모습은 국토의 균형 발전 정신과 맞지 않다. 전북 지역이 오래도록 홀대를 당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로부터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전북도는 도민의 정서가 어떠한 지 헤아려야 한다. 영남과 호남이 확연히 비교 구분된 지는 오래 됐다. 지금은 충청 지역과 비교해도 전북의 경우는 더욱 표가 나고 있다. 지금은 충청 지역과 비교해도 전북의 낙후된 모습을 목도할 때 이같은 불만은 정확한 지적이 아닐수 없다. 전북도는 SOC 확충 사업이 오래 터덕거려왔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시해 말해야 한다. 전북도는 분발해야 한다. 애쓰고 있다고 해도 변화가 미미하다면 도민들이 볼 때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여겨질 뿐이다. 전북도는 도민들이 더 이상 유감을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부권에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변화가 있어야겠다는 지적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전북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쪽의 필요를 계속 말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됐을 때 우리 전북 출신이라는 점을 얼마나 기뻐했는가. 전북도는 SOC 확충을 통한 균형 발전을 계속 말해야 한다.

균형발전을 위한 정신에 반하고 있음을 잘 알 것이다. 그러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할 말을 해야 한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할 말을 해야 한다. 국토의 고른 균형발전은 국민의 오래된 이상이다.그런데 전북이 그 이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전북의 낙후된 모습을 목도할 때 이같은 불만은 정확한 지적이 아닐수 없다. 전북도는 SOC 확충 사업이 오래 터덕거려왔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시해 말해야 한다. 전북도는 분발해야 한다. 애쓰고 있다고 해도 변화가 미미하다면 도민들이 볼 때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여겨질 뿐이다. 전북도는 도민들이 더 이상 유감을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부권에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변화가 있어야겠다는 지적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전북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쪽의 필요를 계속 말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됐을 때 우리 전북 출신이라는 점을 얼마나 기뻐했는가. 전북도는 SOC 확충을 통한 균형 발전을 계속 말해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